비구니·우바이, 특별한 수행결사 펼친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출가수행자와 재가여성불자가 붓다의 길을 가는 여성 수행자로서 한자리에 만나 특별한 수행결사를 펼친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3월 18일 오후 2시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만불전에서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 출범식'을 봉행한다. 13대 전국비구니회가 실시하는 청정승가공동체는 사찰과 대중소임 또는 직장과 가정 등 각자의 처소에서 책임을 다하며 살면서도 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수 수행결사다. 위빠사나 수행을 시작으로 간화선 수행 등 실참 및 다양한 명상수행이 4년간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는 초심자들도 쉽게 수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기 명상수행 위빠사나로 수행결사 문을 연다. 초기경전 속 수행체계 이해를 위한 법문과 실참이 병행된다. 스님들에게는 개인 수행뿐 아니라 사찰에서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수행방향을 제시하고 여성불자 역시 가족들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수행결사는 수행공동체로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복안으로, 12대 집행부에서 실시한 '비구니승가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수행결사'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이번 수행결사가 더욱 특별한 것은 수행을 원하는 신심 깊은 여성불자들의 참가 요청을 수용, 참가대중을 여성불자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비구니스님과 여성불자들이 함께하는 수행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혜결사, 봉암사결사 등 비구스님 중심으로 된 결사는 종종 있었으나 비구니스님과 여성 재가수행자들로만 이뤄진 수행결사는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가 처음이어서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게 13대 전국비구니회 측의 설명이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3월 18일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 출범
비구니 · 우바이 구성 결사 처음
수행결사 지도법사에 범라 스님

전국비구니회는 여성불자들의 신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비구니 승가로서 여성을 포용하며 함께하는 대승적 정신을 실천, 긍정적 호응을 이끌어 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여성불자의 새로운 수행 방향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정승가공동체 일원으로 함께한다는 자긍심을 높이고 수행가풍을 회복하기 위해 △수행자 본분 잊지 않는 경전 독송 수행정진 △결사 청규를 통한 청정승가공동체 순수성 보호 △생활청규 설정 등 각자의 처소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수행결사는 3월 18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에 실시되며 범라 스님이 지도법사로 나선다. 1974년 해인사 삼선암에서 혜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범라 스님은 봉녕사승가대학 졸업 후 8안거를 성만했다. 1989년 태국 촌부리 위백아솜 위빠사나 수행센터 창마이 왓람뻥에서 수행했으며 이후 10년 동안 미얀마 양곤 마하시센터에서 지냈다.

수행결사에는 조계종 비구니스님과 조계종 사찰 및 단체 소속 여성불자면 누구나 동참가능하다. 다만 여성불자는 선착순 30명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결사란 뜻을 같이하는 신행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이자 출가자 본연의 자리인 수행자의 길로 함께 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하파자파티와 석가족 여성들의 출가 이후, 여성 수행자들은 불교 역사의 모든 순간에 참여하며 끊임없이 전진해왔다"면서 "부처님 길을 따르는 수행자이자 청정승가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들의 간절한 신심과 발원이 후대에 이르러 또 다른 결사 정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02-3411-8103

5월부터 문화재→'국가유산'으로 변화

문화재청, 올해 주요 정책 발표
국가유산 체재 전환, 제도 정비
문화재청 명칭 '국가유산청'으로
기후위기 따른 보존정책 수립도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지난 60년간 써왔던 '문화재' 명칭이 오는 5월부터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문화재 정책과 행정을 담당했던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꾸며, 변경된 국가유산 체재에 따른 법과 제도 정비로 이뤄진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브리핑했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이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유형별 법체계를 정비해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7일부터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며, 문화재청의 명칭도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개편된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따라 문화·자연·무형유산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과 전승을 강화한다. 특히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전통재료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품질관리를 위해 올해 9월 경북 봉화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를 개관하고 전통재료 인증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제정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 분야의 종합적·전문적인 보존·연구·활용을 위해 '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추진한다.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무형유산 전승 저변을 확대하고 올해 최초로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승활동 장려금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문화재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R&D)' 에 총 231억원을 투입하고, 올해는 산·학·연을 대상으로 국가유산 피해회복과 적응관리 2개 기술개발 분야의 6개 과제를 지원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이라는 대혁신 과제를 이뤄내기 위해 지난해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유산 체제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면서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확장하여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국가의 품격을 드높이는 해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광동학원 제13대 이사장에 인묵 스님

2월 15일 제404차 이사회서
2027년 1월 27일까지 임기



불교종립 학교법인 광동학원이 2월 15일 제404차 이사회를 열고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사진〉을 제13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새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2월 19일부터 2027년 1월 27일까지 4년이다.

학교법인 광동학원은 운허 스님의 원력으로 1946년 설립됐다. 당시 운허 스님은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봉선사 교구본말사 사찰소유 전답 약 59만평과 임야 약 450만평을 출자해 '광동초급중학교'를 설립했다. 이를 모체로 현재 광동학원 산하에는 남양주 광동중학교를 비롯해 광동고등학교와 의정부광동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신임 이사장 인묵 스님은 "설립자인 운허 큰스님의 뜻을 이어 지역의 명문 사학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불교문화체험과 정신문화 함양을 통해 인성교육과 학업 증진이 이뤄지길 바란다. 교직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동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한마음선원, 대행장학회 제19회 장학금 수여식

경인교대 등 29명에 장학금
"참된 사람으로 성장" 당부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2월 18일 안양본원 5층 법당에서 제19회 대행장학회 장학금 및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대행장학회는 '이 세상에 큰 일꾼이 될 꿈나무들에게 좋은 거름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 주라'는 대행 선사의 유지에 따라 운영되는 장학회다. 한마음선원 본원과 지원에 소속된 신도로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대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담당 스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며, 경인교육대학교 재학생 중 불심이 돈독한 우수 학생에게도 수여된다.

이날 장학금은 대행장학생 12명, 한마음장학생 16명, 경인교육대생 1명 등 총 29명의 학생에게 전달됐다.

이날 전달식에서 이사장 혜수 스님은 "여러 후원자들이 보내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더 많은 꿈나무들에게 밑거름이 되도록 따뜻한 관심과 후원 바란다"고 부탁했다. 신중일 기자

중앙신도회 "재정 안전성 구축하는 한 해"

불자역량결집 디지털 포교사업
불교추모공원 건립 후원 계획도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가 올해 불자역량결집을 위한 디지털 포교사업과 재정안정성 구축을 위한 불교 추모공원 건립 후원에 진력한다.

중앙신도회는 2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7-4차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2024년 주요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246명 중 위임 89명을 포함한 158명이 참석했다. 중앙신도회는 올해 천년을 세우다 결집불사,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및 나눔문화캠페인,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 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 연수, 총무원장스님 교구신도 친견 대법회 등을 전개한다. 특히 불자역량결집을 위한 디지털 포교사업과 재정안정성 구축을 위한 '불교 추모공원 건립 후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교 추모공원 건립 후원은 중앙신도회가 재정안정성 구축을 위해 계획 중인 사업이다. 365.157㎡(약 11만평), 약 30만기 규모로 조성 중인 경기 양주시 소재 추모공원 사업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후원 명칭을 사용케 하고 사업 추진 주체로부터 본 사업 매출의 5%를 기부받는 조건이다. 임은호 기자

法華經專門講說
법화경전문강설
불경(佛經)은 한문(漢文)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불경의 한자(漢字)와 한문의 뜻을 비유하면 음악의 악보와 같습니다.
경전의 한자원리와 한문구성문법도 모르면서 불교를 말하는 것은 악보도 볼 줄 모르면서 음악을 지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을 해서 성불하셨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법화경전문강설"을 검색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최광영연구실